

2007년 6월 30일

슈와브 대사  
미합중국 무역대표  
워싱턴 디씨

슈와브 대사 귀하,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11장(투자)과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11.1조(적용범위) 또는 제12.1조(적용범위)에도 불구하고, 도박 및 베팅 서비스<sup>1)</sup>의 국경간 무역은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도박 및 베팅 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제11장(투자)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도박 및 베팅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김 현 종

---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박 및 베팅 서비스”라는 용어는 전자적 전송을 통하여 공급되는 도박 및 베팅 서비스와 “사행성게임물”을 사용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대로, “사행성게임물”은 특히 베팅을 통하여 우연에 의하여 금전적 손실 또는 이득을 초래하는 게임기기를 포함한다.